



가톨릭 마산

연중 제6주일
세계 병자의 날
2024년 2월 11일
제2604호



재의 예식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레위 13,1-2,44-46
화 답 송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제 2 독 서 1코린 10,31-1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 음 마르 1,40-45
영 성 체 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이수호 다미아노 신부

하동본당 주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주님 앞에 엮드린 나병 환자의 입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뒤에 청해야 합니다. ‘하고자 하시면...’ 하고 말합니다.”

‘하고자 하시면’과 ‘하실 수 있으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청합니다.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마르 1,40)

더러운 영에 묶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마르 9,22)

‘하고자 하시면’과 ‘하실 수 있으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고자 하시면’은 ‘뜻’. 이 병을 낫게 해 주실 ‘의향’을 묻는 말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은 ‘능력’.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쫓아낼 ‘힘’을 말합니다.

‘능력’을 묻는 한 아이 아버지의 청원과 ‘뜻’을 묻는 나병 환자의 청원.

어떤 형태가 올바른 방식일까요?

당연히 ‘뜻’을 묻는 청원이 바른 형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만,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기도로 옮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능력’을 먼저 찾기도 하고, ‘이루어주신다면, 저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형태의 ‘거래’를 제안하기도 하고, 심지어 ‘협박’을 기도의 형태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주님 앞에 엮드린 나병 환자의 입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뒤에 청해야 합니다. ‘하고자 하시면...’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뜻이 이루어질 ‘때’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겨봅시다.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관계의 치유를 통한 아픈 이들의 치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창세 2,18 참조) 한처음부터, 사랑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친교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의 모습을 반영하는 우리 삶은 관계와 우정과 주고받는 사랑의 연결망을 통하여 충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이 친교의 계획이 인간의 마음 깊이 뿌리내려 있기에, 우리는 버림받음과 고독에 대한 체험을 무언가 두렵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비인간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이따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불안한 시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 시기에 몹시 외로웠던 모든 이를 생각합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방문객을 맞이할 수 없었던 환자들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격리 병동에 갇혀 지낸 많은 간호사, 의사,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만 가족과 멀리 떨어져 홀로 임종의 시간을 맞아야 했던 모든 사람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또한 전쟁과 그 비참한 결과로 도움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남겨진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과 고립감에 함께 합니다. 전쟁은 가장 끔찍한 사회 병폐이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희생을 치르게 합니다.

또한 평화와 더 많은 자원을 누리는 나라에서조차, 노년과 질병의 시기를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버림받는 상황으로도 경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은 주로 개인주의 문화, 곧 온갖 대가를 치르고 얻는 생산성을 찬양하고, 효율성의 신화를 조장하며, 개개인이 더 이상 보조를 맞출 힘이 없을 때에는 무관심해지고 냉혹해지기까지 하는 개인주의 문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면 개인주의 문화는 버리는 문화가 됩니다. 버리는 문화에서 “사람은 존경하고 보호할 우선 가치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 장애인, 태아처럼 ‘아직 쓸모없는 존재’, 노인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면 더욱 그러합니다.”(모든 형제들, [Fratelli Tutti], 18항)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간의 존엄성과 필요에 중점을 두지 않는 어떤 정치적 결정을 이끌어 냅니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모든 사람이 건강에 대한 기본권과 의료 혜택의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과 자원을 늘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의료 혜택을 단지 의사와 환자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치료의 연대’를 수반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으로 축소시켜 버리는 것도 취약한 이들이 버림받고 고립되는 데에 일조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창조 초기에 이 말씀을 하시어 인류를 위한 당신 계획의 심오한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서서히 스며들어 의심과 균열과 분열에 이어 결국 고립을 야기하고 마는 죄의 치명적

인 상처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죄는 사람과 그의 모든 관계를, 곧 사람이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과, 피조물과 맺는 모든 관계를 공격합니다. 그러한 고립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는 사랑의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가 삶의 모든 중요한 여정에서 혼자라는 숨 막히는 느낌을 체험하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질병에 필요한 돌봄의 첫 번째 형태는 함께 아파하고 사랑으로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자를 돌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돌봄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느님과, 다른 이들 곧 가족 구성원과 친구와 의료인과, 피조물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맺는 모든 관계를 돌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표상을 바라봅시다(루카 10,25-37 참조). 걸음을 늦추어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의 역량을, 고통받고 있는 형제의 상처를 돌보는 그의 온유한 사랑을 살펴봅시다.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진리를 기억합시다. 이는 누군가 우리를 환영해 주었기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으며 친교와 형제애로 부름받았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삶의 이러한 측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허약할 때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 함께 채택해야 하는 첫 번째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시적이든 만성적이든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밀감과 온유함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를 숨기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이들의 짐이 된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마십시오. 병자들의 상태는 우리 모두에게, 정신없이 바쁜 삶의 속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라고 촉구합니다.

급변하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 예수님의 연민 가득한 눈길을 닮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외로운 이들, 소외되고 버림받았을 이들을 돌봅시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도 안에서, 특히 성찬례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고독과 고립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개인주의, 무관심, 버리는 문화에 맞서 싸우고 온유와 연민의 문화를 증진하는 데에 힘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이들, 취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은 교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 관심과 사목적 염려의 중심에도 그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자의 치유이신 지금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구해 주시고 우리가 친밀감과 형제적 관계의 장인이 되게 도와 주시도록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립니다.



대목구장 주교가 된 제르만 무세, 애잔한 신부 모리스 카넬

황광지 가타리나



제르만 무세 주교

제르만 무세(Germain Mousset/ 문제만 1876~1957)

무세는 1876년 9월 프랑스에서 태어나, 1900년 6월 24일 파리외방전교회 사제로 서품되었다. 한 달 남짓 지난 뒤 1900년 8월 1일 조선에 입국하여, 이듬해 1901년 4월 제주에 부임했다. 제주에는 라크루 신부가 먼저 사목하고 있었고, 무세 신부가 사목을 분담했다. 그는 5월에 제주에서 일어난 신축교안을 통해 교우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다. 뮈텔 주교에게 제주에 더 있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 1902년 4월 서울에서 피정을 마친 무세 신부에 대해 뮈텔 주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오늘 나는 다케 신부를 무세 신부의 후임으로 제주도에 임명했다. 무세 신부가 제주도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타케 신부를 대신해서 마산포로 가게 될 것이다.”

제주의 참혹한 학살을 뒤로하고

초기 제주에는 활발한 선교활동을 하여 1901년 초에 영세자 240여 명, 예비신자 7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신앙의 불길이 번져가고 있을 때 신축교안이 발생하였다.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세금을 부당하게 걷고, 세금 징수원으로 고용된 천주교인들이 연루되어 반감을 일으켰다. 외국 선교사들이 방관했다는 점도 있었고, 토착 신앙과 민간 풍습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점도 반감을 증폭시켰다. 이로 인하여 신자는 물론 양민까지 포함하여 700여 명이 관덕정 광장에서 학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때 순교한 신자들의 시신이 화북천 주변에 마구 묻혀 있었는데 1903년 조정에서는 아라동 부근 황무지를 매장지로 결정하여 옮겨 묻도록 하였다. 이곳이 현재의 황사평성지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놓여 있던 무세 신부는 제주 사목 일 년을 뒤로하고, 1902년 4월 20일 마산포본당에 부임했다. 당시 교인은 26명이었다. 그가 부임하여 열심히 사목했다. 그해 8월 뮈텔 주교는 마산포본당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인근 지방에서 온 40명가량의 교우들에게 성사를 주었다. 성모몽소승천참례에 성당으로 쓰이는 신부의 조그만 방에서 영성체자가 40명이나 되었으니 보통 일이 아니라고 뮈텔 주교는 일기에 적었다. 다음해에도 뮈텔 주교가 방문하여 견진성사를 집전하게 되었다. 조선대목구장인 뮈텔 주교가 교우가 많지도 않은 신생 본당에 정성을 기울였다. 제주에서 큰 상처를 입었던 무세 신부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무세 신부는 제주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마산포를 개항지에 적합한 본당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사목지의 확장에 몰두

타케 신부의 초가집 성당은 교우들이 미사 참례하기에 매우 협소하여, 무세 신부가 사제관을 따로 지어 나가며 넓히게 되었고, 지금 성지여고 내에 있는 요셉성당이 지어질 때까지 수리를 반복하며 그 자리에서 사용되었다.

타케 신부가 그랬듯이 무세 신부도 인근 논밭을 차례로 매입했다. 1907년 무세 신부의 편지를 보면 성지여고가 있는 터는 무세 신부가 맨 마지막에 샀다. “주교님께 말씀드렸던 논들은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논은 두 필지인데 하나는 1,000원이고 또 하나는 800원입니다. 이 땅들은 한 덩어리이고 교구 논들 옆에 있습니다. 주교님께서 당장 전액을 주시기 어렵다면 위쪽 필지만이라도 살 수 있도록 800원만

이라도 마련해 주실 수 없을까요?” 뮈텔 주교가 1,800원을 지원했다.

마산포에 개신교가 들어와 확산되고 종교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무세 신부는 사목지의 확장에 몰두했다. 무세 신부는 교우들의 헌금으로 1910년 학교를 세워 ‘천주교 성지학교’로 이름을 붙였다. 이듬해에 총독부 인가를 얻어 50여 명의 학생들이 초등교육을 받게 되었다.

제2대 대구대목구장 주교로 착좌

1911년 4월 8일 대구대목구가 서울로부터 분할되어 설정되었다. 이때 무세 신부는 교구청 당가 신부로 소임을 맡으며 마산을 떠났다. 이후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초대 지도 신부, 효성여자보통학교 초대 교장, 효성유치원 초대 원장 등을 거쳤다.

드망즈(안세화) 주교 선종 후, 1939년 5월 제2대 대구대목구장으로 주교로 서품되고 착좌했다. 그러나 일제는 모든 외국인 교구장에게 1940년까지 사표를 쓰도록 강요했다. 이에 1942년 7월 무세 주교는 교구장직에서 사임하게 되고, 일본인 주교가 교구장으로 착좌했다. 제르만 무세는 1949년 4월 잠시 프랑스에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와, 1951년 포항 성모자애원을 경영하였고, 그 후 파리외방전교회 한국관구장을 맡아 일했다. 24세에 조선에 입국하여 사목하였고 무엇보다도 교육에 힘을 쏟은 무세 제르만 사제는 1957년 6월 8일 선종하여 대구대교구 성직자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제르만 무세 주교 묘



모리스 카넬 신부

모리스 카넬(Mauritius Canelle/ 간홍모 1884~1918)

모리스 카넬은 1884년 출생하여 1910년 9월 파리외방전교회에서 사제로 서품되어 1911년 1월 4일 27세 나이에 선교사로 조선에 오게 되었다.

1911년 4월부터 무세 신부의 뒤를 이어 마산포본당에서 사목하였다. 카넬 신부는 어려운 여건을 견디며, 성당 곁에 성모 발현지 루르드의 동굴을 본떠서 만드는 등 교우들의 신심을 위해 힘썼다. 1912년 1월에 대구대목구 새 교구장 드망즈 주교가 마산포본당에 첫 사목방문을 왔다. 교우들의 일상적인 일 외에도 관할구역의 학교문제 등을 논의하며 관심을 기울였다. 드망즈 주교는 간홍모 신부와 함께 소촌본당(현 문산본당)도 방문했으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마산포본당을 방문하여 사목을 도왔다.

1914년 5월 3일 간홍모 신부는 전남 목포본당(현 산정동본당)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불과 5개월이 지난 10월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 동원되어 프랑스로 귀국하였고, 1918년 베르덩 전투에서 전사하여 짧은 삶을 마감했다.

▶참고: <천주교마산교구40년사> <삼천포본당50년사> <원월동성당120년사> <뮈텔 주교 일기> 천주교대구대교구 자료, 천주교제주교구 자료, 천주교광주대교구 자료



기억할 선종 사제
김재석(요셉) 신부
1987년 2월 18일

교구장 서리 동정

사회복지시설협의회 정기총회 미사

일시: 2월 15일(목) 14:00
장소: 교구청

제54차 평협 정기총회 미사

일시: 2월 17일(토) 11: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성경 교육봉사자 개강미사

일시: 2월 17일(토) 16:00
장소: 교구청

대방동본당 사순특강

일시: 2월 18일(주일) 10:30

베네딕토 성경학교 졸업미사

일시: 2월 18일(주일) 14:00
장소: 명서동성당

지구장 본당 방문

일시: 2월 15일(목)
본당: 봉곡동/ 신안동
일시: 2월 16일(금)
본당: 구암동/ 산호동/ 칠암동/ 망경동

교구/본당

그라츠 차매교구 위원회

일시: 2월 15일(목) 11:00
장소: 교구청

광주가톨릭대학교 학부 2학년 입사

일시: 2월 15일(목)
광주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입사
일시: 2월 16일(금)

성경 교육봉사자 피정 개강미사 및 임명식

일시: 2월 17일(토)
장소: 교구청

가정·노인사목분과위원회연수

일시: 2월 17일(토) 14:00
장소: 교구청

전례분과위원회연수

일시: 2월 18일(주일) 10: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2월 가나혼인강화

일시: 2월 18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본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임용균(바오로)
담당판사: 여인석(베드로) 신부
장소: 교구 법원
일시: 2월 18일(주일)까지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위원회/기관/단체

‘청소년 꿈나르샤’ 일일찾집

(청소년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일시: 2월 24일(토) 10:00~17:00
장소: 진해장애인복지관(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내용: 청소년 성장지원 활동사업비 마련 일일찾집
먹거리(커피와 디저트), 볼거리(버스킹 공연 등), 즐길거리(‘벼락’시장)
문의: 진해청소년수련관 055·540·0169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2월 24일(토)~25일(주일)
3월 2일(토)~3일(주일)
3박 4일- 2월 15일(목)~18일(주일)
3월 7일(목)~10일(주일)
8박 9일- 3월 14일(목)~22일(금)
4월 15일(월)~23일(화)
40일- 4월 11일(목)~5월 20일(월)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성독)

일시: 2월 24일(토) 10:00~16:30/ 준비물: 성경, 미사 준비
장소: 부산 분도명상의집/ 참가비: 3만 원
문의: 010·3271·0766(권벨라렛다)

청주교구 철야 기도회

일시: 매주 금요일 20:00~토요일 01:00
장소: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강사: 김웅렬 신부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아트테라피와 함께하는 사순피정

일시: 3월 23일(토)~24일(주일)/ 장소: 부산 본원
대상: 40세 이하 미혼 남녀/ 문의: 010·2817·3101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2월 12일(월)		기도회 쉽니다(설 명절)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2월 17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제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50ml, 힐데 스킨 100ml, 힐데 바나 65g, 힐데 샴푸 400ml, 힐데 크림 50ml

뜻정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2월에게 대답합니다

하해영 마리아 동화작가/ 가톨릭문인회

1월이 어디로 갔는지 보셨나요? 2월의 새초롬한 질문에 부랴부랴 달력을 열어보았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세운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저에게는 뱃살 대신 복근이 살살 고개를 내밀어야 하고, 독후감은 열 장이 넘게 손에 남아 있어야 하건만 복근도, 독후감도 1월 달력과 함께 사라져 찾을 수가 없네요.

어린 시절 동그란 시계 모양 생활계획표에 ‘꿈나라, 공부하기, 숙제하기, 놀기, TV보기’를 빼곡히 채워 넣으며 뿌듯해하던 방학 첫날과 노는 시간과 TV보는 시간만 잘 지켰다며 혼이 나던 방학 마지막 날이 떠오릅니다. 만약 제가 그 많던 계획들을 잘 지키는 어린이로 자랐다면, 지금쯤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인물이 되어 지구를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돌아보니 지금 저의 모습은 계획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대신 계획에 없던 일을 해냈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4월 16일 자 교구보 <가톨릭마산>을 읽다가 발견한 신인문학상 공모에 도전한 것 또한 계획에 없던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런저런 글을 조금씩 써서 모으고는 있었지만, 세상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저에 대한 불신으로 버무려진 망설임이 컸기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마태오 복음 7장 8절 말씀은 저에게 세상을 향해 한 발 나서라는 응원가처럼 들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두드리는 용기를 내라는 북돋움이었지요. 그 말씀에 용기 내어 도전했고, 감사하게도 동화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3년 1월 1일에 세운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고,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매주 받아 읽기만 하던 <가톨릭마산>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인간의 삶을 B와 D사이의 C라고 했지요. 출생(Birth), 사망(Death) 사이의 선택(Choice)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혼, 취업, 진학처럼 큰 사건에서부터 먹고 자는 소소한 일상까지 모두 고민하며 선택하지요. ‘그때 집을 샀더라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스러운 선택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짬뽕을 먹을지, 짜장을 먹을지 망설이며 친구와 하나씩 시켜 사이좋게 나눠 먹은 즐거운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누구도 선택의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는 변한다는 사실이었지요.

이제 2월에게 대답할 말이 떠올랐습니다. 흘러보내 버린 1월을 두고 낙담하지 않고 남은 2024년을 더 알뜰히 보살피겠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흔들리고 고민하겠지만, 도전의 설렘이 가득한 선택으로 언젠가는 제 안에 묻힌 талан트를 두 배, 열 배로 키워내는 현명한 주님의 종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두 번째 시작을 응원해 주는 2월이 있어 ‘다시 시작’을 결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체성사와 교회법(2)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Q

성체를 하루에 몇 번 모실 수 있나요?

A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은총을 받을 수 있으니, 성체를 하루에도 여러 번 모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모시고, 낮에도 미사에 참여하고, 저녁에도 미사에 참여해서 하루에 성체를 세 번이나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지만 교회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체에 대해 최고의 정성과 존경을 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교회법으로도 여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세기부터 성체는 하루에 한 번만 영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원칙은 1917년에 편찬된 교회법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죽을 위험이나 성체 모독을 긴급히 예방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 하루에 한 번만 영성체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지나친 열성으로 인해 성체를 도구화하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 반포 이후, 미사를 하루에 한 번만 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여 점차 두 번째 영성체를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탄과 부활의 성야미사에서 성체를 모신 신자들은 그날 낮미사에서 다시 영성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목요일 성유축성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은 같은 날 '저녁 주님만찬미사' 때 영성체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오전 평일미사 때 영성체한 신자도 같은 날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때 다시 영성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73년 훈령 「무한한 사랑」(Immensae Caritatis)에서는 허가 범위를 더 넓혀 세례·견진·병자·서품·혼인미사와 성당 축성미사, 장례미사 등에도 두 번째 영성체를 허락했습니다.

그 후, 1983년 새롭게 편찬된 교회법전에서는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917조)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매번 다시”가 아니라 “한 번만 더 다시”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들은 하루에 두 번은 영성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두 번째 영성체는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하며(사목지침서 79조), 임종하는 이에게는 노자성체가 언제나 허락됩니다.